ELIO'S LITTLE DISCOVERIES

# Backwards Through the Day

하루를 거꾸로 걸어요 · 장소마다 찾은 물건 말하기



9세 · Day 070 · 함께 읽기 · 4장면



**The bench came first, because Mum had been there last. Elio crawled underneath. “Found it!” he shouted, and held up something round and brown. It was a pebble.**



**Next came the washing line. Bori walked under the three white sheets, looking down at every blade of grass. She found one wooden peg, but no button.**



**Elio sat down on the path. “Maybe a bird took it,” he said. “Maybe,” said Mum, “but we have one more place to look before we start guessing.”**



**Last of all, but first of the day, was the bean bed. They went between the tall plants and looked under every leaf. There were beans, and more beans, and no button.**

#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초록 그릇과 쿠션 덮개를 함께 보고,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디부터 찾는지 물어봐요.

**함께 읽을 때**

엄마가 하루를 거꾸로 말하는 장면에서 손가락으로 저녁, 오후, 점심, 아침을 짚어 봐요. 부엌 장면마다 탁자 위 초록 콩 그릇이 있는지도 슬쩍 봐 두세요.

**생각 나누기**

단추는 누가 가져갔나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원문에서 확인하고, 엘리오가 마지막에 한 질문이 왜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해요.

**생활에서**

오늘 하루를 거꾸로 말해 보는 놀이를 해 봐요. 무엇을 했는지와 함께 내 물건이 어디로 옮겨 갔는지도 떠올려 봐요. 정답을 맞혀야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하루의 순서를 거꾸로 따라가는 긴 함께 읽기 원고 초안이에요. 누적 파닉스로 통제한 독립 읽기나 추리 평가가 아니에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